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

Education Investment Behavior of Mothers about Children of the Lower Grades in Primary School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석사 민순선
교수 이기영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Master : Min, Soon Sun

Professor : Lee, Ki Yo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vestment behavior of mothers who have children of the lower grades in primary school and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54 mothers who have children of lower grades in primary school in Seoul.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mean, percentage, multiple regression. The households which paid their money for private education investment cost was 182,543 won a month and the mean of time use of mother for child education was 125 minutes a day. The most influencing variable on money investment to private education investment behavior was family income and on time investment to it was influence of reference group.

◆ key word: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 학업보습교육, 특기/재능교육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연구비를 일부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I. 서론

20세기 이후 발달심리학을 통해 생의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의 시간과 금전투자는 자녀의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고 있다. 자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투자활동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적할 수 있다. 교육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 능력 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학부모의 83.5%가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한국소비자보호원, 1997)을 고려해 보면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는 초등학교 취학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연구는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연구만큼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금전투자를 중심으로 연구됨으로써 자기관리기능이 부족한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을 충분히 규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이 시간집약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김성희, 1995)을 고려해보면, 사회적 적응력이 미숙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한 교육투자는 금전투자외에 많은 시간투자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연구는 자녀교육에 대한 시간투자를 고려하지 않으므로써 자녀의 인적자원 형성을 위한 가정의 다양한 투자실태를 규명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자녀의 인적자원 형성을 위한 공식적인 투자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울 기점으로 시작된다고 할 경우,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투자행동에 대한 연구는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초기특성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주된 책임자가 어머니임(Gronau, 1991)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행동

인적자원 투자의 한 형태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은 일반적으로 사교육비로 대표되는 금전투자행동으로 설명(김인숙, 1996; 정영숙^a, 1995)되고 있을 뿐, 자녀교육과 관련된 가계의 시간투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자원이 다른 자원과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 1997)을 고려해 보면, 금전투자의 투자가 시간자원의 소비를 유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는 자기관리 기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인지과제 해결과 사회적 기능의 숙달을 위해, 어머니의 관리 및 지도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 고등학교 자녀교육보다 더 많은 어머니의 시간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교육투자를 설명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어머니의 시간투자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을 어머니의 금전투자 뿐 아니라 시간투자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 변수 고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크게 자녀 관련 변수, 가정환경 관련 변수, 어머니 관련 변수로 나누어 보았다.

1) 자녀 관련 변수

(1) 자녀학년

사교육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지출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미·김성희, 1997; 박미희, 1998). 그러나 사교육비를 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로 구분할 경우, 학습교육비만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규모가 커지는 것(김의숙, 1996)으로 나타났다.

(2) 자녀성별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1999)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학생당 과외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미희(1998), 양세정·이윤금(1997)의 연구에서는 교육비 지출이 자녀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2) 가정환경 변수

(1) 주택소유

김성희·김순미(1997)의 연구에서는 취학 전 자녀를 둔 가계에서는 주택의 소유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택의 소유여부와 교육에 대한 금전투자와의 관계는 집단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2) 조력자 유무

직접 자녀와 접촉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사조력자의 존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시간투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김유경, 1995). 이에 가사조력자 유무가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시간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 월평균 소득

가계 소득은 각 가계의 소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교육비 지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양세정·이윤금, 1997)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자녀교육에 대한 금전투자뿐 아니라 시간투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Lino, 1994)되고 있다.

(4) 순자산

Friedmann(1957)는 어떤 사람의 소비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영향받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Mincer(1974)는 교육비 지출이 자산과 관계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Friedmann(1957)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자녀교육에 대한 금전투자는 순자산과 관련시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어머니 관련 변수

(1) 어머니 학력

박미희(1998), 백승훈(1998), 정영숙(1996a)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성희(1995)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교육비 지출, 자녀를 위한 시간비용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 취업

취업모가 전업모에 비해 자녀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는 연구결과(문숙재·김성희, 1996; 양세정, 1998), 더 적게 지출한다는 연구결과(박미희, 1998; 정영숙, 1996b)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교육비 지출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유경, 1995) 등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김성희(1995)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취업유무는 자녀의 인적자본을 위한 시간투자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3) 교육기능에 대한 선별의식

교육의 기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도구적 역할에 있다고 가정하는 선별가설은 부모의 교육투자 동기와 관련되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변수로 지적(박미희, 1998; 정영숙, 1996b)되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자녀와 달리,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의 과제해결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초등학생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이 교육기능에 대한 선별의식에 의해 영향받는지는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4) 준거집단영향

준거집단은 모든 행위에서 준거들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생활 및 구매활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백경미, 199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가계 소비생활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금전 또는 시간투자 역시 준거집단의 특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견된다.

(5) 자녀에 대한 인적자원평가

인적자원에는 개인의 특성, 능력, 재능, 기술, 외모 등이 포함되는데,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행

동은 자녀의 인적자원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 수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김성희, 1995). Bryant(1992)은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의 인적자원을 평가하는가는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금전 및 시간투자에 있어서의 적절한 방법 및 투자정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6)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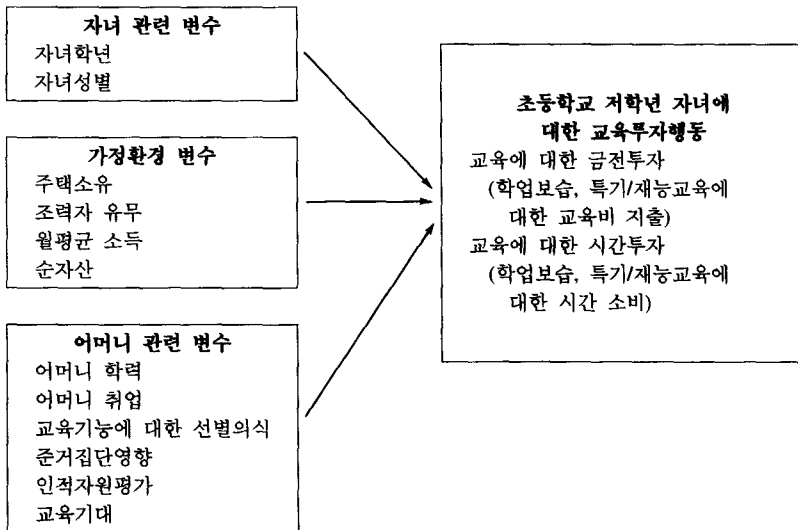
학업달성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와 관련하여 정수천(1995)은 연구대상 학부모의 95.2%가 대학졸업 이상의 교육을 자녀가 받기 원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와 교육투자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의 축적이 요구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

2. 연구모형



니의 교육투자행동 실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가?

<1 - 1> 어머니의 금전투자실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가?

<1 - 2> 어머니의 시간투자실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가?

<1 - 3> 어머니의 금전투자와 시간투자실태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을 설명하는 자녀 관련 변수, 가정환경 변수, 어머니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어떠한가?

<2 - 1> 어머니의 금전투자행동을 설명하는 자녀 관련 변수, 가정환경 변수, 어머니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어떠한가?

<2 - 2> 어머니의 시간투자행동을 설명하는 자녀 관련 변수, 가정환경 변수, 어머니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어떠한가?

3. 측정도구의 작성

1) 교육투자행동

교육투자행동 중 금전투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한국교육개발원(1994), 박미희(1998)의 사교육비 지출 측정에 관한 연구내용 및 예비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우선 ① 학과보습, ② 영어, ③ 컴퓨터, ④ 미술관련 활동, ⑤ 피아노, ⑥ 피아노 외 음악관련활동, ⑦ 점도, 태권도, 수영 등 체육활동, ⑧ 용변, 글짓기, 서예, 바둑 등 총 8개 교육내용에 대해 각각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원수강, 학습지, 기타등의 교육형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당된 교육내용의 교육형태 항목에 월 교육비를 기입하게 한 후 총합을 구하였다.

시간투자는 김성희(1996)의 연구 및 예비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참고로 학업교육 및 특기/재능교육과 직접 관련된 어머니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학업관련 숙제 및 과제 지도 및 감독, 문제집 학습지 풀기 지도 및 채점, 일기쓰기 지도, 준비물 챙겨주기 및 등교 준비 시켜주기, 피아노 등 특기/재능연습지도 및 감독 등에 각각 사용하는 어머니의 일일 평균 시간을 기입하게 한 후, 이를 분단위로 조정하여 합산한 것을 측정된 시간투자로 사용하였다.

2) 인적자원평가

김유경(1995)의 자원평가척도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인적자원평가는 자녀의 언어, 수리, 음악, 미술, 체육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은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클수록 자녀의 인적자원에 대해 어머니가 높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Cronbach's $\alpha = .60$ 으로 문항수를 고려할 때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3) 교육기대

교육기대는 학업성취와 특기/재능성취로 구분하여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학업교육과 관련된 교육기대는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학업성취수준을, 특기/재능교육과 관련된 교육기대는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특기/재능성취수준을 각각 6점 Likert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높은 점수는 높은 교육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36$ 으로 나타났다.

4) 교육기능에 대한 선별의식

교육기능에 대한 선별의식은 Becker(1975), Weiss(1995) 등을 참조하여 정영숙(1996b)이 구성한 개인의 학벌주의 성향, 명문대 선호도, 실력평가기준, 대학진학 선호도 등을 토대로 한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의식은 모두 6문항으로 5점 Likert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의 선별기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79$ 로 나타났다.

5) 준거집단영향

준거집단영향은 백경미(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또래 아이의 특기/재능교육 및 학업교육 실태와 준거집단으로부터 영향받는 정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된 준거집단영향 척도는 모두 12문항의 5점 Likert로 구성하였으며, 문항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항을 제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준거집단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11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77$ 이다.

4. 조사 대상자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서울시내 영등포구, 강남구, 노원구 등에 위치한 6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480명의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총 480부였으며 수거된 자료는 468부였다. 이 중 내용기재가 부실한 14부 자료를 제외하고 45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window형 SPSS 프로그램의 빈도, 백분율, 평균,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5.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경향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 단	빈도	%	변수	집 단	빈도	%
자녀 학년	1학년	211	46.5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95	21.1
	2학년	243	53.5		전문대졸	54	12.0
	계	454			대학졸	246	54.8
			대학원이상		54	11.9	
자녀 성별	남자	227	50.0	아버지 직업	전문직	231	51.1
	여자	227	50.0		비전문직	221	48.9
	계	454		계	452		
자녀수	1명	66	14.6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	35	7.5
	2명	346	76.7		400~499 만원	27	5.9
	3명이상	39	8.6		300~399 만원	96	21.2
	계	451			200~299 만원	148	32.6
어머니 연령	35미만	123	27.5	순자산	2억 초과	95	21.9
	35~39	249	55.6		2억~1억	198	45.7
	40~44	63	14.1		1억 미만	140	32.3
	45이상	13	2.8		계	433	
	계	448		주택소유	자가	321	70.9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208	46.4		비자가	132	29.1
	전문대졸	45	10.0		계	453	
	대졸	179	40.0		가사 조력자	있음	81
	대학원이상	16	3.6	없음		372	82.1
	계	448		계		453	
어머니 취업 여부	전업	328	72.6	아버지 연령	35미만	20	4.5
	취업	124	27.4		35~39	243	54.2
	계	452			40~44	148	33
아버지 연령	35미만	20	4.5		45이상	37	8.3
	35~39	243	54.2		계	448	
	40~44	148	33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45이상	37	8.3	교육기능에 대한 선별의식	448	20.57 (1.98)	5-25
	계	448		준거집단영향	432	39.01 (2.93)	15-54
어머니 취업 여부	전업	328	72.6	인적자원평가	449	16.32 (2.96)	5-25
	취업	124	27.4	교육기대	449	7.39 (1.96)	2-12
	계	452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 실태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투자행동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

상으로 자녀의 학업보습과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실시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2〉를 보면, 조사 대상 어머니의 77.7%가 자녀의 학업보습을 위해 자녀에게 사교육활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을 보면, 한달 총 금전투자 평균은 182,543 원으로 이중 학과보습의 한달 총 금전투자는 50,237

〈표 2〉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교육 실태

(N=452)

교육내용	교육형태	빈도(%)	교육내용	교육형태	빈도(%)
학과보습	시키지 않음	101(22.3)	영어	시키지 않음	204(45.1)
	시킴	351(77.7)		시킴	248(44.9)
	개인지도	33(7.3)		개인지도	40(8.8)
	그룹지도	11(2.4)		그룹지도	58(12.8)
	학원수강	55(12.2)		학원수강	42(9.3)
	학습지	234(51.8)		학습지	90(19.9)
	기타	18(4.0)		기타	18(4.0)
컴퓨터	시키지 않음	364(80.5)	미술관련 활동	시키지 않음	312(69.0)
	시킴	88(19.5)		시킴	140(31)
	개인지도	12(2.7)		개인지도	24(5.3)
	그룹지도	13(2.9)		그룹지도	54(11.9)
	학원수강	25(5.5)		학원수강	41(9.1)
	기타	38(8.4)		기타	21(4.6)
피아노	시키지 않음	188(41.6)	피아노 외 음악관련 활동	시키지 않음	188(41.6)
	시킴	264(58.4)		시킴	264(58.4)
	개인지도	104(23.0)		개인지도	104(23.0)
	그룹지도	18(4.0)		그룹지도	18(4.0)
	학원수강	141(31.2)		학원수강	141(31.2)
	기타	1(0.2)		기타	1(0.2)
검도, 태권도 수영 등 체육활동	시키지 않음	289(63.9)	웅변, 글짓기, 서예, 바둑 등	시키지 않음	341(75.4)
	시킴	163(36.1)		시킴	111(24.6)
	개인지도	12(2.7)		개인지도	8(1.8)
	그룹지도	37(8.2)		그룹지도	51(11.3)
	학원수강	99(21.9)		학원수강	37(8.2)
	기타	15(3.3)		기타	15(3.3)

원이었으며 특기/재능교육의 한달 총 금전투자는 151,094원으로 나타났다. 김인숙(1996)의 연구에 의하면 사교육비 중 학습교육비보다 재능교육비가 더 적게 지출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비 중 학습교육비보다 특기/재능교육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의 연령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인숙(1996)의 연구대상은 52.4%가 4, 5, 6학년 고학년인데 비해 이 연구는 초등학교 1, 2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학습교육보다 특기 또는 재능에 대한 초기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업보습을 위한 교육비가 특기/재능 교육비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교육에 대한 시간투자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 125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루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초등학교 자녀의 학업 또는 특기/재능 교육을 위한 시간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

2.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교육에 대한 금전투자와 시간투자의 관계

자녀교육에 대한 금전투자와 시간투자간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표 5〉

〈표 3〉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금전투자

금전투자내용	N(%)	평균 (표준편차)	총평균 (표준편차)
한달 총 금전투자	435(96.2)	182,543 (127,797)	176,458 (129,856)
학과보습	348(77.7)	50,237 (36,560)	38,744 (38,442)
특기/재능	410(90.7)	151,094 (112,618)	137,664 (115,784)
영어	246(54.4)	56,293 (39,454)	30,705 (40,434)
컴퓨터	86(19.0)	35,010 (20,166)	6,661 (16,307)
미술관련 활동	140(31.0)	43,229 (30,737)	13,389 (26,298)
피아노	262(58.0)	76,489 (27,890)	44,533 (43,340)
피아노의 음악관련 활동	57(12.6)	81,667 (80,119)	10,299 (39,162)
검도, 태권도, 수영 등	162(35.8)	57,653 (45,970)	20,663 (38,992)
웅변, 글짓기, 서예, 바둑 등	110(24.3)	46,300 (21,673)	11,267 (22,563)

주1) 총평균은 금전투자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평균값임(N=452).

〈표 4〉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시간투자 내용

(단위: 분)

시간투자내용	N(%)	평균 (표준편차)	총평균 (표준편차)
일일 총 시간투자	454(100)	125 (58)	125 (58)
학업관련 숙제 및 과제지도	327(72.0)	35 (20)	33 (21)
문제집, 학습지 풀기 지도 및 채점	405(89.2)	32 (17)	29 (19)
일기쓰기 지도	366(80.6)	20 (11)	16 (13)
준비물 챙겨주기, 등교준비 시켜주기	364(80.1)	17 (12)	14 (13)
피아노 등 특기/재능 연습지도 및 감독	327(72.0)	46 (23)	33 (28)

주1) 총평균은 시간투자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평균값임(N=452).

〈표 5〉 자녀교육에 대한 금전투자와 시간투자간의 상관관계

(N=450)

금전투자 \ 시간투자	자녀교육에 대한 시간투자	학업보습에 대한 시간투자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시간투자
자녀교육에 대한 금전투자	.201***		
학업보습에 대한 금전투자		.194***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금전투자			.227***

의 결과를 살펴보면 상관관계는 높지 않으나, 자녀 교육에 대해 금전투자를 많이 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교육을 위해 더 많은 시간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보습이나 특기/재능교육에 금전투자를 많이 할수록 학업교육이나 특기/재능교육을 위한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관리가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경우 자녀교육을 위한 학업보습 및 특기/재능교육을 위한 금전투자가 많아질수록 자녀의 학교교육 외 활동을 관리, 지도해야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보여진다.

3.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교육에 대한 금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관련, 가정환경 및 어머니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명목변수인 자녀학년, 성별, 주택소유, 조력자 유무 변수들을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자녀학년의 경우 1학년을 기준으로 2학년에 1점을, 성별의 경우 남아를 기준으로 여아에 1점을, 주택소유는 비자가를 기준으로 자가에 1점을, 조력자유무는 조력자없음을 기준으로 조력자있음에 1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월평균소득은 해당되는 범주의 중간값을 사용하였고 어머니학력은 해당되는 학력을 연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중회귀분석에 앞서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50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에 대한 금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표 6〉의 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자녀교육에 대한 금전투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월평균 소득, 어머니의 학력, 준거집단영향, 조력자 유무, 자녀학년, 교육기대 변수 중 자녀교육에 대한 금전투자는 월평균 소득($\beta = .39$)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해 금전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금전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근로소득이라고 밝힌 김성희(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이들 6개의 변수가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금전투자를 설명하는 부분은 34%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을 학업보습과 특기/재능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학업보습에 대한 금전투자는 준거집단영향($\beta = .17$), 조력자 유무($\beta = .16$), 월평균 소득($\beta = .15$)이 비슷한 설명력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성별($\beta = -.12$)과 어머니 학력($\beta = -.12$)이 유사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의 변수가 학업보습에 관한 어머니의 금전투자를 1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보습에 대한 어머니의 금전투자는 조력자 유무나 월평균 소득과 같이 경제적 요인보다 어머니의 준거집단영향에 의해 좀 더 많이 설명되고 있다. 이것은 자녀의 학업보습에 대한 금전투자가 가정의 경제적 요인보다 남이 하는 만큼 시켜야 한다는 의식에 의해 더 많이 영향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금전투자는 월평균 소득($\beta = .39$)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받으며, 어머니 학력($\beta = .21$), 자녀학년($\beta = .12$), 자녀성별($\beta = -.11$), 준거집단영향($\beta = .11$), 교육기대($\beta = .10$)가 비슷한 수준의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이들 6개 변수의 설명력은 36%인 것

〈표 6〉 어머니의 금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수	자녀교육에 대한 금전투자	학업보습에 대한 금전투자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금전투자
	β	β	β
자녀 관련 변수			
자녀학년	.11*	.01	.12**
자녀성별	.06	-.12*	.11*
가정환경 변수			
주택소유	.03	.07	.01
조력자 유무	.12**	.16**	.08
월평균 소득	.39***	.15**	.39***
순자산	.02	.57	.01
어머니 관련 변수			
어머니 학력	.15***	-.12*	.21
어머니 취업	-.05	.04	-.07
교육기능에 대한 선별의식	-.03	-.09	.00
준거집단영향	.15***	.17***	.11*
인적자원평가	.03	.05	.01
교육기대	.11**	.08	.10*
회귀상수	-251083	12126	-263210
N	392	392	392
R ²	.34	.12	.36
F값	21.51***	9.62**	22.93***

주1) * $p < .05$ ** $p < .01$ *** $p < .001$

로 나타났다. 학업보습과 달리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금전투자에서 월평균 소득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는데 이는 학업보습에 비해 특기/재능교육이 가정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 또한 높은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보습과 달리 어머니 학력이 높아지면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금전투자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특기/재능교육을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축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교육에 대한 시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관련, 가정환경 및 어머니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자녀교육에 대한 시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표 7〉의 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시간투자는 준거집단영향과 인적자원평가에 의해 4%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교육에 대한 시간투자를 학업보습과 특기/재능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녀의 학업보습에 대한 시간투자는 〈표 7〉의 결과에 나타나듯이 준거집단영향($\beta = .17$)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준거집단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자녀의 학업보습에 더 많은 시

〈표 7〉 어머니의 시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수	자녀교육에 대한 시간투자	학업보습에 대한 시간투자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시간투자
	β	β	β
자녀 관련 변수			
자녀학년	-.05	-.09	.03
자녀성별	-.04	-.14**	.12*
가정환경 변수			
주택소유	.02	.03	.01
조력자 유무	.04	-.01	-.01
월평균 소득	.01	-.04	.07
순자산	-.003	.02	-.04
어머니 관련 변수			
어머니 학력	.05	.03	.06
어머니 취업	-.02	-.01	-.02
교육기능에 대한 선별의식	-.03	-.03	-.03
준거집단영향	.14*	.17**	.03
인적자원평가	.10*	.05	.13*
교육기대	.04	.05	-.01
회귀상수	30.45	34.47	-4.02
N	393	393	393
R ²	.01	.03	.02
F값	1.88*	2.19*	2.0*

주1) * $p < .05$ ** $p < .01$

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학업보습에 대한 어머니의 금전투자가 준거 집단영향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고 있음과 일맥상 통한 결과이다. 한편 준거집단영향과 자녀성별은 학업보습에 대한 어머니의 시간투자를 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시간 투자는 인적자원평가, 자녀성별에 의해 5%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금전투자는 월평균 소득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자녀의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시간투자는 자녀의 인적자원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에 의해 많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인적 자원에 대해 높이 평가할수록 자녀의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시간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월평균 소득이 높을 때, 어머니는 자녀에게 더 많은 특기/재능교육기회를 제공하지만 어머니 자신의 시간 투자는 자녀의 인적자원에 따라 우선적으로 영향받음을 시사한다. 아마도 높은 질의 인적자원은 높은 생산성을 함의하므로 어머니는 높은 인적자원으로 평가되는 자녀에게 자신의 시간을 더 투자함으로써 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는 것 같다.

V. 결론 및 제언

서울지역 6개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45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을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학교 외 자녀교육의 경우 77.7%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학교외 학업보습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학교 외 학업보습이 일반적 현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특기/재능교육과 관련하여 영어, 피아노, 그리고 피아노 외 음악관련 활동은 45-58%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과외 교육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검도, 태권도, 수영 등과 같은 체육활동, 미술관련 활동, 그리고 웅변, 글짓기, 서예 바둑 등은 20-30%의 어머니만이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기/재능교육이 학업보습에 비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교육 실태를 고려해 볼 때,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업보습은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특기/재능교육은 선별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교육에 금전투자를 많이 하는 어머니는 시간투자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금전투자와 시간투자간의 관계가 보완재적 관계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교육투자 중 학업보습에 대한 금전투자와 시간투자는 가정의 경제적 조건보다 준거집단영향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업보습에 대한 교육투자행동이 가정환경보다 주변 학부모의 교육투자행동에 의해 더 민감하게 영향받을 만큼 각 가정에서 일반적이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금전투자는 월평균 소득에 의해 그리고 시간투자는 인적자원평가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녀의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교육투자행동이 가계의 경제적 조건이나, 자녀 자신의 인적자원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교육투자 중 학업보습에 대한 금전투자와 시간투자는 일반적이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나,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금전투자와 시간투자는 조건적이며 선별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기초한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경우, 학업보습에 대한 금전투자보다 특기/재능교육을 위한 금전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특기/재능교육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심화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교육투자행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정환경 변수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보면, 자녀에 대한 학업보습은 가정환경에 크게 구애됨 없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특기/재능교육은 가정환경에 의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특기/재능교육 기회가 가정환경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생의 초기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특기/재능교육이 가정환경 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특기/재능교육시 정부 보조를 수혜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셋째, 학업보습이 가정환경보다 오히려 준거집단 영향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고 있음은 학업보습에 대한 과도한 금전투자가 학교교육의 정상화 뿐 아니라 사회계몽활동을 통한 어머니의 의식전환이 뒷받침되어야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교육의 내실화 및 대중매체를 통한 어머니의 계몽교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 연구는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행동의 주체를 어머니로 한정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투자행동을 간과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참여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교육투자행동에 대한 연구는 가정내 아버지 역할을 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뿐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횡단적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의 발달적 변화를 규명하였으면 한다.

【참고 문헌】

- 김성희(1995). 인적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김순미(1997). 아동기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38-251.
- 김유경(1995). 고등학생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계획과 수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숙(1996). 초등학교 아동의 사설학원교육의 실태 분석 및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숙재·김성희(1995).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관리학회지* 33(4): 301-313.
- 박미희(1998).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미(1995). 도시주부의 과소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훈(1998).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 추정.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세정·이윤급(1997).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자녀수와 자녀성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8(2): 81-101.
-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1997). *가정관리학*. 서울: 학지사.
- 정수천(1995). 초등학교 아동의 사교육비 실태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1996a). 가계의 인적 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7(1): 1-13.
- 정영숙(1996b).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7(2): 207-222.
- 한국교육개발원(1999).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 방안.
- Bryant, W. K. (1992). Human capital, time use, and other family behavior.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s Issues*, 13(4): 395-405
- Gronau, R. (1991). The intrafamily allocation of good-how to separate the adult from the child. *The Journal of Labor Economics*, 9(3): 207-235
- Friedman, M. (1957). *A theory of consumer func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Jang, Y. G. (1995). Expenditures on education for female-headed and married-couple households. *The Journal of FERM Division of AAFCS*: 45-50
- Lino, M. (1994). Expenditures on child by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7(3): 2-19
- Mincer, J.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 N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d Columbia Univ. Press.
- Weiss, A. (1995). Human capital vs. signalling explanations of wag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4): 133-154.